

# 펼 곤기전 수색... 세월호 진입로 뚫기 검토

### 미수습자 찾기 구체적인 작업 설계 돌입... 다음주 초 확정

### 드론 촬영하고 안전도 검사... 육상 거치 지면 이유도 조사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인양 원료와 동시에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습·수색 체제로 전환됐다. 본격 수색에 앞서 13일부터 약취 제거와 세균·벌레 방제, 선체 부식 등을 막기 위한 세척·방역 작업에 들어간다.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수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월호에 진입로를 뚫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습·수색 체제로 전환=세월호 인양 작업을 마친 수습본부는 12일 미수습자 수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설계에 들어갔다.

수습본부는 먼저 세월호의 외관을 촬영한다. 고압세척으로 인한 선체 변형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금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드론을 띄워 촬영할 계획이다.

세월호를 씻어내는 작업은 13일과 14일 진행된다. 고압 세척기로 세월호 표면에 붙은 소금기와 녹, 조개류, 진흙 등을 씻어낸다. 이는 선체 부식 속도를 늦추고 작업자들의 미끄러짐 등을 막기 위해서다.

15일 하루 동안 연막소독 방식을 활용해 선체 내부에 대한 방역 작업을 한다. 내부 방역을 마치면 16일과 17일 이틀간 선체 위해도 및 안전도 검사를 통해 가연성 가스의 존재 여부나 붕괴 위험성 등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수색을 진행하게 된다.

미수습자 수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월호에 진입로를 새로 뚫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객실은 진상규명과 관계

없으므로 수색자들이 오갈 수 있는 진출입로를 새로 뚫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입로는 선수·선미 쪽에 각 1~2곳씩 뚫을 것으로 보인다. 진입로 개설 여부는 주말께 결정된다.

수습본부는 다음 주 초 구체적인 수색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앞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14일 세월호 현장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유족, 선조위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육상 거치 지면 이유 조사"=선체 조사위는 세월호의 육상 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를 육상 거치하기로 했던 날짜가 7일에서 10일로 미뤄진 것에 대해 올바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의 육상 거치가 굉장히 긴박하고 시간에 쫓기다보니 선체조사위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선체조사위가 공식 출범하고 조치가 꾸러지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육상 거치 과정에서 세월호의 무게 측정의 잇단 오류로 이송작업이 늦어졌다.

목포신항에 도착할 때만 해도 세월호 무게는 1만3460톤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상하 이셀비지, 자문업체 TMC 등이 추가로 계산한 결과 1만4600톤으로 늘어났고, 모뎀 트랜스포터 2차 테스트에서는 1만6000톤, 마지막 육상 이송을 앞두고는 1만7000톤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특수이송장비인 모뎀 트랜스포터의 도입 개수도 늘어났다.

처음부터 세월호의 무게가 제대로 측정됐다면 특수이송장비인 모뎀 트랜스포터를 추가 도입하는 시간을 아끼고 세월호의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상하이셀비지가 애초에 세월호 무게를 1만6000톤 수준으로 해수부에 보고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뇌물수수 노획용 전 동구청장 2년형 선고

납품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획용 전 광주시 동구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종민 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구청장으로 소속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를 예방하고 물품 구매 관련 업무의 공정성·불가매수성을 누구보다 같은 책무를 맡았던 채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해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돼 구청장 직무에 복귀한 지 불과 보름

만에 구청장실에서 10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받았다"며 "주민과 공무원들의 실망과 불신, 법 경시 풍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구청에 LED조명 설비를 납품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청장은 앞서 2014년 자문단체 위원 4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해외연수비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 7월 석방됐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 '신용장 사기극' 27억원 채권 6명 적발

'신용장 사기극'을 펼쳐 국내 시중 은행 자금 수습작업을 부당하게 채권 일당에 세관관 직발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12일 중국산 저가 샌들을 홍콩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신용장을 활용해 국내 모 시중 은행 자금 27억원을 채권 수습업자 J씨 등 6명을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5년 1억5000만원에 구입한 중국산 저가 샌들 3만3000켤레를 27억원에 홍콩에 수출하기로 수입업자 H씨와 계약했다. H씨는 홍콩 은행에 '검사증명서' 요구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했다. J씨는 이 신용

장을 가지고 국내 모 시중 은행에서 27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H씨는 수입업자에서 검사요구서가 위조됐다며 홍콩 은행에 결제를 거절했다. 홍콩 은행은 국내 모 시중 은행에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J씨는 결제를 미루면서 국내 모 시중 은행은 고소란히 27억원을 날렸다.

세관 관계자는 "수출입 업자가 통상 신용장 개설 때 필요하지 않은 검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공모해놓고 일부러 위조한 검사요구서를 만들어 금융기관 자금을 편취한 사기극"이라며 "수입업자는 기소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요양시설 대표가 보호사로 남편 허위 등록 4억 부당수령

남편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노인요양시설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남편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한 뒤 근무시간을 부풀려 29개월동안 장기요양급여 4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로 최모(여·61)씨를 불구속 압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6개월동안 광주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로 남편을 허위 등록하거나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2014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 4억 9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세월호 3주기 맞아

### 아이들 염원 담긴

### 노란 종이비행기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12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과 중흥어린이집 아이들이 광주시 북구 효죽어린이공원에서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는 노란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지혜학교 학생 팽목항~목포 도보순례

### 교사와 함께 미수습자 전원 수습·진실 규명 기원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대한학교인 광주 지혜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팽목에서 목포까지 도보순례를 한다.

광주 지혜학교는 세월호 참사 3주기 다음 날인 17일부터 3박4일 동안 학생 110명

과 교사 20명이 팽목에서 목포까지 70km를 걷는 도보순례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혜학교는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미수습자 전원 수습을 기원하고 진실규명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도보순

례를 해왔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도보순례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공공성 회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혜학교 학생들은 도보순례 전 1주일 동안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자체 모임인 '세월호 천일 순례위원회'도 운영한다.

지혜학교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침몰한 세월호와 다를 게 없다"며 "세월호 참사는 물론이고 희생자들이 구

조되지 않은 이유는 '공공성의 부재와 사회적이익의 추구'에 있다고 본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도보순례를 통해 참사 추모와 미수습자 수습기원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혜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돼 운영되는 대한학교로 현재 중·고등학교 118명이 재학중이며 25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편의점 현금인출기 고장" 속여 휴대폰 캐시 충전 후 줄행랑



○수집 곳의 편의점에서 2000만원이 넘게 휴대폰 캐시를 외상 충전한 뒤 달아난 30대 사기범이 적발됐다.

○12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김모(36)씨는 지난 1월10일부터 목포·무안 일대 편의점을 돌며 자신의 휴대폰에 캐시를 충전한 뒤 현금인출기 조작등을 핑계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맡겨 아르바이트생을 안심시킨 뒤 달아나는 수

법으로 총 39차례에 걸쳐 현금 2700여만 원 상당의 캐시를 충전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전과 16번으로 인터넷 포커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질러 왔는데, 추가적으로 게임중개사이트에서 기프트 카드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8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 받고 기프트 카드는 보내지 않은 혐의로 적발.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오선동 공장(진곡산업단지내)**



대지 2531평 **최저가 4,278,000,000**  
건물 753평 **감정가 6,112,000,000**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세정아울렛)**



전용면적 35평 **최저가 721,000,000**  
감정가 1,610,000,000

**동구 충장로5가(업무시설)**



대지 400평 **최저가 3,304,000,000**  
건물 329평 **감정가 3,406,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최저가 2,521,000,000**  
건물 577평 **최고가 4,502,000,000**

**서구 화정동 원룸(화정역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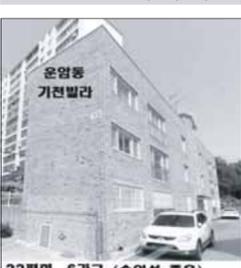
토지 94평 **최저가 784,000,000**  
대지 157평 **감정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최저가 742,000,000**  
건물 305평 **감정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익성 좋음)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유자 6,000만원** **월세 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 010-8559-8905 이용국 팀장